

추세는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다



은행 Weekly | 2025.7.14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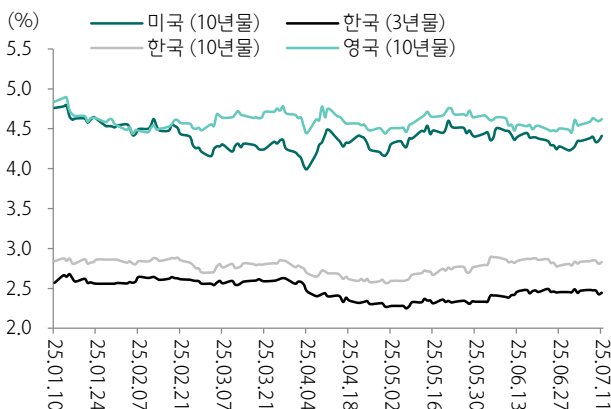
-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발의. 과거에 취득한 자사주도 강제로 소각하고 계속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포함. 재산권 침해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인만큼 위험 소지도 논란
-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 속도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은행과 플랫폼기업, 핀테크,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
-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별로 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그 사이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은행권의 재정적 부담 요청 가능성도 제기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주담대 위주 영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예대출 규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현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각각 1.15%, 0.85%의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가계대출 가중치를 더 높이거나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추는 방식을 고민 중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5년 7월 11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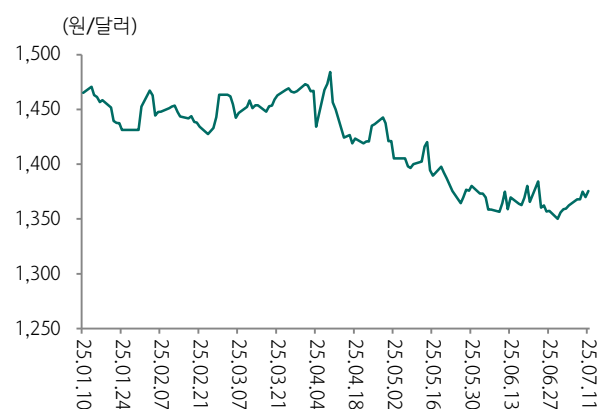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18	20.9	5.6		2,598,982.9	4.0	9.2	30.5	32.4	-598.1	-39.2	980.7	-187.1
은행	0.57	6.8	8.6	0.62	168,821.8	9.1	17.7	57.1	50.8	88.2	49.5	-110.9	-2.7
KB 금융	0.70	8.0	9.0	0.70	44,745.5	4.6	9.4	56.0	41.5	17.4	-11.3	-43.8	24.7
신한지주	0.57	7.3	8.8	0.65	34,361.9	10.0	15.9	50.3	45.4	48.7	41.0	-34.4	-11.1
우리금융	0.52	6.3	8.6	0.56	19,196.0	12.9	26.4	62.9	68.2	4.0	6.6	-2.4	7.5
하나금융	0.55	6.5	9.0	0.62	26,536.3	9.1	19.8	68.2	64.1	15.0	-7.9	-11.0	-3.7
기업은행	0.48	6.1	8.0	0.57	16,745.9	10.8	25.1	50.1	46.5	11.5	0.9	-3.0	-8.5
BNK 금융	0.43	5.8	7.6	0.54	4,874.5	14.3	30.7	58.5	48.1	21.0	6.4	-4.4	-6.1
이M 금융	0.39	5.4	7.4	0.46	2,492.6	13.5	30.0	70.2	83.1	-38.4	-0.6	-6.4	-2.2
JB 금융	0.78	7.0	11.8	1.01	4,915.6	17.4	30.7	53.0	55.7	9.1	14.4	-5.4	-3.1
카카오뱅크	2.17	29.6	7.5	0.76	14,953.6	7.7	10.6	52.6	48.9	-4.0	2.9	-27.3	29.4
삼성카드	0.75	9.9	7.7	2.20	6,557.6	10.1	11.4	43.8	43.5	6.6	0.4	-0.5	-5.9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9.1% 상승해 KOSPI 상승률 4.0%를 또다시 큰폭 초과상승. 상법개정안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추가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은행주 또한 추가로 크게 상승. 정치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구상이 나오면서 규제 우려가 재부각된 데다 추가 상승으로 일부 애널리스트의 업종 투자 의견 하향 변경 등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은 모습.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외국인 중심으로 소폭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는데 반면 금융투자자와 연기금 등이 은행주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국내 기관이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은행주 상승에 한 몫.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세 지속. 주중 변동 폭은 크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고율관세를 예고하자 금요일에 금리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2%로 한주간 7bp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89%로 한주동안 큰 변화가 없었음. 한편 7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 그러나 이는 주택시장 과열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함으로 기자회견 분위기는 매우 비둘기적으로 해석되는 분위기. 따라서 국내 3년물 국채금리는 2.45%로 2bp 하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2.82%로 한주간 1bp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75.8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13.3원 상승. 관세 영향에 미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 전주 외국인 순매수는 KOSPI를 9,800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은행주는 1,100억원 순매도했고, 국내 기관은 KOSPI를 6,000억원 순매도했지만 은행주에 대해서는 880억원을 순매수했음
- 전주에도 특징주는 중소형은행. BNK금융과 iM금융이 각각 14.3%와 13.5% 상승해 3주연속 타행들보다 큰폭 초과상승했고, JB금융은 17.4%나 급등해 3주전의 약세분을 일거에 만회. 이로써 BNK금융과 iM금융, JB금융의 최근 1개월 추가 상승률은 모두 30%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저 PBR 종목의 valuation 정상화 컨셉에 상대적으로 PBR이 낮은 중소형은행들이 부합하고 있고 여기에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 구상 등으로 중소형은행들이 규제 우려에 덜 민감하다는 점도 한 몫 한 듯.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BNK금융과 iM금융의 PBR은 여전히 0.43배와 0.39배에 불과한 상황. 반면 KB금융은 주가가 4.6%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최근 2주간 상승 폭이 가장 낮아지면서 타행들과의 PBR gap 축소 중
- OK저축은행은 지난주 iM금융 지분 323만주(발행주식수 대비 1.9%)를 시간외거래로 매각한 것으로 추정. 8일 기타금융에서 323만주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이정도 규모이면 OK저축은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OK저축은행의 2월말 iM금융 지분율은 9.70%로 2024년말 9.55% 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자사주 소각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했기 때문. 향후 iM금융이 자사주 매입·소각을 계속 진행할 경우 시중은행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인 10%를 상회할 수 있으므로 지분을 일부 정리한 것으로 보임. 같은날 기타법인이 323만주를 순매수했다는 점에서 상기 물량을 모두 받아간 듯. 매각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블록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가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잠재 오버행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
- 은행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차익실현 시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음. 주가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올해 은행주 평균 상승 폭은 50.8%로 2024년초 이후 약 100% 가까이 상승 중이며, 2024년 이후 KOSPI 대비 초과상승 폭은 78.2%p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주에 이렇다할 대형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단지 저점 대비 추가 상승 폭이 컸을 뿐 그렇다고 현 은행 평균 PBR 0.57배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높은 valuation도 아님. 우리가 일차적으로 target PBR을 0.6배로 주장했던 이유는 경상 ROE 기준 0.8배에서 규제 우려 등을 감안했기 때문. 그러나 자사주 의무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KOSPI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뒷받침된다면 PBR 0.8배, 그리고 그 이상 상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 추세는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 법. 설령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 폭이 깊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실적이 받쳐주고 CET 1 비율이 끌어준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재차 강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은행주 차익실현 시기를 저울질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으로 판단
-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 및 가계부채 억제 위한 예대출 조정 방안들이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지만 주주환원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거센 파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임팩트는 없을 것으로 전망. 2분기 실적을 전후한 은행주 비중확대 전략 계속 유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147,000원), 신한지주(매수/TP 81,000원)

- KB금융은 최근 추가 조정으로 가격 매력 다시 커짐. 2분기 순익 컨센서스 상회 예상되고 CET 1 비율도 추가 상승해 하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최소 7,000억원, 최대 1조원 기대. 총주주환원을 50% 상향 돌파로 밸류업 모멘텀 크게 부각 전망
- 신한지주는 어피니티 잔여 지분이 블록딜로 해소되면서 오버행 우려 완화. IMM PE 보유분은 2029년까지 만기가 재연장되고 IRR이 낮아 단기에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2분기 CET 1 추가 개선 등에 따라 할인 요인 해소와 gap 축소 기대

Global Peer Table

(2025년 7월 11일 종가 기준)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1W	1M	3M	YTD
KOSPI	1.18	20.9	5.6		2,598,982.9	4.0	9.2	30.5	32.4
은행	0.57	6.8	8.6	0.62	168,821.8	9.1	17.7	57.1	50.8
KB금융	0.70	8.0	9.0	0.70	44,745.5	4.6	9.4	56.0	41.5
신한지주	0.57	7.3	8.8	0.65	34,361.9	10.0	15.9	50.3	45.4
우리금융	0.52	6.3	8.6	0.56	19,196.0	12.9	26.4	62.9	68.2
하나금융	0.55	6.5	9.0	0.62	26,536.3	9.1	19.8	68.2	64.1
기업은행	0.48	6.1	8.0	0.57	16,745.9	10.8	25.1	50.1	46.5
BNK금융	0.43	5.8	7.6	0.54	4,874.5	14.3	30.7	58.5	48.1
IM금융	0.39	5.4	7.4	0.46	2,492.6	13.5	30.0	70.2	83.1
JB금융	0.78	7.0	11.8	1.01	4,915.6	17.4	30.7	53.0	55.7
카카오뱅크	2.17	29.6	7.5	0.76	14,953.6	7.7	10.6	52.6	48.9
삼성카드	0.75	9.9	7.7	2.20	6,557.6	10.1	11.4	43.8	43.5

미국

S&P 500	4.89	23.8	18.6	8.35	55,150.0	-0.3	4.1	17.1	6.4
은행	1.50	13.6	11.0	0.95	1,940.6	-2.5	8.2	28.0	14.0
Wells Fargo	1.57	15.1	11.5	1.01	268.6	-1.3	10.2	32.8	17.5
JPM	2.31	15.4	15.5	1.23	797.2	-3.1	7.5	22.0	19.7
CITI	0.79	11.9	7.0	0.58	162.0	-2.2	10.7	41.8	23.2
BOA	1.23	12.9	10.0	0.84	352.0	-4.5	4.5	30.7	6.3
US Bancorp	1.30	11.0	12.3	1.03	73.4	-1.6	7.8	25.9	-1.4
PNC	1.46	13.1	11.6	1.08	77.9	0.2	10.8	31.0	2.2
BB&T	0.97	11.8	8.5	0.97	59.5	-0.2	12.8	30.1	4.7

중국

상해A주지수	1.29	13.7	9.8	0.78	55,131.5	1.4	4.1	9.8	4.7
은행	0.72	7.6	9.6	0.73	12,611.5	1.2	9.1	17.3	13.8
공상은행	0.73	8.0	9.4	0.72	2,651.9	3.4	12.5	17.8	15.8
건설은행	0.72	7.4	10.0	0.81	2,040.2	-0.5	9.3	13.4	10.9
농업은행	0.80	8.1	9.9	0.64	2,172.6	4.8	12.5	23.2	18.4
중국은행	0.65	7.5	8.9	0.72	1,715.8	-0.2	4.8	7.2	3.3
교통은행	0.60	7.0	8.4	0.61	667.1	-2.1	4.4	12.1	3.6
초상은행	1.00	7.8	13.2	1.20	1,156.4	1.2	5.1	14.8	16.1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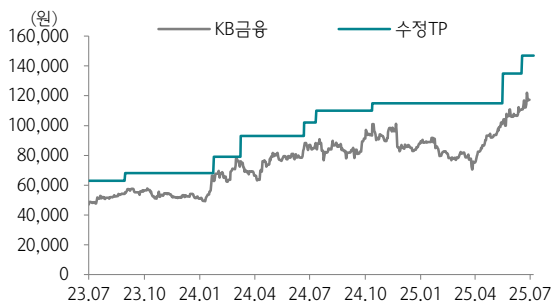
NIKKEI	2.01	19.4	9.7	3.02	707,442.4	-0.6	3.1	18.0	-0.8
은행	0.94	13.0	7.1	0.51	76,543.5	0.1	3.3	22.6	7.0
Mitsubishi UHF	1.08	11.3	9.8	0.56	24,225.9	-0.4	2.6	22.1	8.7
Sumitomo Mitsui Financial	0.91	10.4	9.2	0.51	14,178.2	-1.1	1.7	19.0	-3.0
Mizuho	0.93	9.9	10.0	0.39	10,263.7	0.7	3.4	25.9	5.4
Sumitomo Mitsui Trust	0.85	9.8	9.1	0.38	2,785.4	-1.1	2.6	21.9	5.9

유럽

MSCI Europe	2.15	15.8	12.6	0.94	13,371.8	1.1	-0.8	13.9	7.6
은행	1.12	9.4	11.8	0.64	1,438.7	1.5	1.0	24.4	29.6
HSBC	1.23	9.2	13.1	0.71	158.9	2.8	4.2	23.5	15.9
Santander	1.06	8.4	12.6	0.75	107.4	1.2	3.6	31.3	61.5
BNP Paribas	0.72	7.6	9.5	0.40	86.6	2.3	0.5	24.0	29.3
Credit Agricole	0.67	7.5	9.4	0.26	48.4	0.8	0.7	10.8	20.4
Deutsche	0.73	9.0	8.0	0.41	49.4	3.7	3.0	32.1	52.4
Unicredit	1.40	9.3	15.5	1.21	90.3	2.6	1.6	28.9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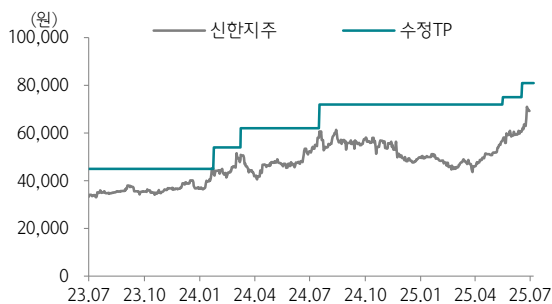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6.30	BUY	147,000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23.9.11	BUY	68,000	-20.92%	-2.50%
23.4.5	BUY	63,000	-21.48%	-13.81%

신한지주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6.30	BUY	81,000		
25.5.29	BUY	75,000	-20.53%	-18.67%
24.7.29	BUY	72,000	-27.80%	-14.72%
24.3.21	BUY	62,000	-23.07%	-6.45%
24.2.5	BUY	54,000	-16.81%	-4.63%
23.4.5	BUY	45,000	-20.35%	0.67%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7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5년 7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43%	4.57%	0.00%	100%

* 기준일: 2025년 7월 11일